

# 인터넷 PC 보급 · 정책의 내용과 향후 전망

이성엽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사무관

## 인터넷 PC 보급확산 등 지식정보산업 활성화 계획

최근,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학교교육 및 숙제 등 공부를 위해서도 컴퓨터가 필수적이나, 서민층의 경우 컴퓨터 가격이 너무 비싸고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PC 및 S/W를 구매하거나 관련 정보의 취득이 어려워 정보화의 대열에 동참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또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각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이 컴퓨터가 정보인프라에 접속하여 실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나, 98년 말 현재 국내 PC 보급대수는 7,292천대로 100인당 16대에 불과하며, 이중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PC는 400만 대 수준으로 100인당 9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PC 보급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PC의 가격(무료S/W, 유통비용 등이 주요원인임)을 들 수 있다.

미국시장에서 1천불 이하의 저가형 PC 판매비율이 98년의 경우 40%에 이르나, 국내 PC가격은 현재 120~240만원(15" 모니터 포함)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PC 보급부진과 함께 인터넷 사용료 및 기존의 사용시간에 비례하는 통신요금 체계에 따른 통신료 부담이 인터넷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S/W의 경우에도 컴퓨터에 끼워파는 공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법복제가 성행함으로써 S/W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소프트웨어업체의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정보화 추진의 장애요인을 해

소하고 인터넷 및 정보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위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보 단말기인 멀티미디어 PC를 보급 · 확산시킴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소득격차에 따른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인터넷 및 정보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다.

첫째로, 저가의 멀티미디어 PC를 보급하기로 하였다.

동 PC의 사양은 H/W의 경우 CPU 400MHZ이상, RAM 64MB이상, HDD 6.4 GB이상, CD-ROM 40 배속 이상, 모뎀 56Kbps, 3D 그래픽카드 8M, Speaker 120W이상, S/W는 운영체제, 워드프로세서, 통신용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가격은 15" 모니터를 포함하여 90만원대 (17" 모니터인 경우는 10만원 추가)이다.

이 정도 PC 사양이면 기능면에서도 인터넷, 워드프로세서 등 기본적인 기능외에 3차원 게임 등 고급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고급 멀티미디어 PC 수준으로 평가된다.

둘째로, PC를 일시불로 사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컴퓨터적금제도를 도입하여 행하기로 하였다.

국민컴퓨터적금은 우체국 적금가입자에게 우선 컴퓨터를 설치해준 후 적금만기시 컴퓨터대금을 보전 처리해주는 적금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 실명의 개인이며 가입기간은 6개월 ~ 36개월(월단위),

가입한도는 500만원 이하이다.

적용이율은 가계우대정기적금이율에 우대이율을 추가한 것이 될 것이며 컴퓨터적금 가입시 가계수표 대월 약정서류를 제출하고 적금 가입후 2회 이상 월 불입금 납입시 컴퓨터를 우선 설치해 주며, 적금만기 시 컴퓨터대금으로 지급한 대월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셋째로, 우체국을 통한 S/W판매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H/W 판매시 S/W를 끼워팔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한 S/W를 구매할 수 있도록 우체국을 통하여 S/W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우수 S/W 카탈로그(패키지 S/W, 게임, 교육용 CD-ROM등)를 우체국에 비치하여 주문을 받아 통신판매 하는 방식외에 우체국 전자상거래사이트 (<http://www.epost.go.kr>)에서 고객이 S/W를 구입 하는 방식도 병행 추진된다.

넷째로, 저렴한 가격의 인터넷 보급 및 데이터통신 요금의 정액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PC통신사업자들과 ISP사업자의 참여를 장려하여 현재 각각 1만원 수준인 PC통신 및 인터넷의 가입비 및 기본이용료를 가입비는 면제하고 월 기본이용료는 4,000원 이하로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 사용시간 비례에 따른 현행 데이터통신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정액제의 도입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의 PSTN 및 ISDN을 이용한 PC통신접속서비스(014XY)에 대하여 시간제한 정액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간대별 정액요금은 월 33시간 기준 10,000원, 66시간 기준 20,000원, 150시간 기준 38,000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ADSL 요금은 현행 4만원 정액제에서 3만원대 정액제로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가 멀티미디어 PC를 "인터넷 PC"로 명명하여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브랜

드 사용을 허락할 방침이며 "인터넷 PC"에다 업체명을 추가하여 PC의 A/S도 해당업체가 일정 기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800여개 우체국망을 활용하여 PC 판매대행, ISP 가입대행, S/W 판매 대행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체국은 구체적으로 PC 구매신청 및 ISP 가입신청을 접수하여 PC업체 및 ISP에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S/W의 경우는 기존의 우편 주문판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카탈로그 판매를 하게 될 것이다. 이 판매대행과 관련 우체국은 일정액의 수수료 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 인터넷PC 보급사업 현황

이러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품질, A/S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개 PC업체와 4개 ISP를 최종적으로 사업참여업체로 확정하였다. PC업체로는 PC뱅크, 멀티패밀리정보산업, 용산조합, 세진컴퓨터랜드, 엘렉스, 엑스정보산업, 현대멀티캡, 주연테크, 성일컴퓨터, 세지전자, 컴마음이 참여하였으며, ISP는 한국통신, 한국통신하이텔, 나우콤, 삼성SDS가 참가하였다.

인터넷PC의 가격은 본체 가격기준으로 80~85만원 선이며, 15인치 모니터 포함의 경우 94~99만원, 17인치 모니터 포함의 경우 104~109만원 선이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PC 보급사업에 리눅스 운영체제를 선택사항으로 채택하기로 확정하였다.

최근 무료라는 강점과 MS Windows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안정성등을 이유로 확산추세에 있는 리눅스를 인터넷 PC 운영체제로 채택함으로써 인터넷 PC 가격은 현행가격 대비 10만원 정도 저렴하다.

리눅스를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업체는 성일컴퓨터, 현대멀티캡, 세지전자, 용산조합, 멀티패밀리정보산업, 엘렉스 등 6개 업체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리눅스는 PC 업체가 제품출시시

설치를 한 상태로 보급되기 때문에 그동안 설치가 어려웠던 리눅스의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아래아한글, 통신용프로그램 등 인터넷PC 기본S/W를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워드나 인터넷 등의 작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한편, 리눅스의 단점인 게임 등 응용 S/W의 부족은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S/W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국민이 PC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로, 컴퓨터적금 가입후 1개월(2회 불입)이 지난 99.10월부터 우체국을 통하여 PC를 공급받을 수 있다.

둘째로, 개인이 컴퓨터구입적금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우체국에서 일시금을 지불하고 PC 구매가 가능하며, 우체국 사이버쇼핑몰을 통해서도 PC 구매가 가능하다.

셋째로, 이번 계획에 참여하는 PC업체가 기존 유통망을 통해서 동일 모델의 PC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통점에서도 PC를 구매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PC 사업 추진 업체로 선정된 12개 업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인터넷 PC가 해당 규격을 만족하는지의 여부와 성능이 우수한지의 여부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PC 성능점검을 10.7~8일 양일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점검 내용은 인터넷 PC 규격 만족 여부 점검 여부와 인터넷 PC성능 측정인데 성능 측정은 성능 측정용 S/W를 각 업체의 인터넷 PC에 설치한 후 실행시켜 그 결과를 기록하였다.

※ 성능측정S/W: 미국 Ziff-Davis사의 Winstone 98 v1.0, Winbench 98 v1.0, 3D Winbench 98 v1.0 등 3가지 벤치마킹 S/W 점검결과 모든 인터넷 PC 업체가 당초 제시한 규격을 만족하였으며, 성능

측정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A/S문제는 원칙적으로 PC 업체에서 담당하며 우선, PC 본체에 부착된 A/S센터 전화를 통한 방법을 취하고 각 우체국은 가장 가까운 업체별 서비스센터의 전화번호를 민원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PC 업체는 H/W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S/W는 증상별로 일정 금액을 징수할 계획(PC를 직접 A/S센터에 가지고 오는 경우는 무료)이다.

향후, 업체부도로 A/S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인터넷PC라벨" 구입비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A/S펀드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품질, A/S문제는 지속적으로 점검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별도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PC 사업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인터넷PC홈페이지([www.mic.go.kr/internetpc](http://www.mic.go.kr/internetpc))를 10. 8일에 개설, 운영중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인터넷PC의 사업 및 구입안내, 제품소개, 활용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업체별로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PC 품질, A/S등 사업전반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인터넷PC에는 심볼마크가 부착되어져 있어 다른 업체의 국민PC나 국민컴퓨터, 인터넷국민PC와 구별될 수 있다. 인터넷 PC의 심볼마크는 인터넷 PC를 통하여 세계와 접할 수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외곽테두리는 타원형을 통한 곡선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왼쪽은 지구본 모형에 인터넷 개인 주소에 사용되는 @를 표현하고 있다. 오른쪽은 PC의 마우스를 표현하고 있으며, 전체 디자인 Concept은 "인터넷 PC를 사용하여 세계와 연결하고 무한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세계를 탐험한다"는 의미이다.

10.20일 시작된 인터넷PC의 판매는 99.11.10일

현재 6만여대를 넘어선 상태이며, 9.20일 시작된 국민컴퓨터적금은 11,10 현재 13만건을 넘은 상태이다. 당초 예상만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11월말 수능시험종료, 겨울방학 등을 맞아 PC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10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이다.

### 인터넷PC 사업의 정책성과 및 향후전망

인터넷PC 보급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경제적 이유로 PC구매가 어려운 일반서민층 등에 PC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위한 기반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어촌등에 컴퓨터를 활용한 고급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정보화 혜택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C 구입과 인터넷 이용의 패키지 상품 보급 및 정액제 등 인터넷 이용에 따른 통신비용 경감으로 인터넷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정책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3년간 900만대의 PC가 보급되는 경우 PC자체로만 9조원의 시장형성이 예상되며 그외 프린터등 컴퓨터 주변기기 시장, PC활용에 필요한 S/W산업, IP, ISP등 인터넷 관련 산업, 전자상거래 등 산업의 활성화로 약 20조원 이상의 시장창출이 기대된다.

둘째, PC가격의 전반적 인하로 일반국민의 PC 구입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의 PC 가격이 불과 1-2개월전만 해도 150-200만원선에서 현재는 110-120만원선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이는 대기업이 그동안의 PC 가격의 거품을 인터넷PC정책의 영향으로 자발적으로 걷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PC의 유통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종전의 대리점체계를 통한 다단계 유통구조가 아닌 무점포판매방식의 PC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델컴퓨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입장에서 중간마진을 최소화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PC구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일부 인터넷PC 업체의 경우 대리점이 없는 상황에서 우체국 및 사이버쇼핑몰을 통하여 PC를 판매중이다.

넷째, 행망용PC 가격인하로 정부예산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능, 저가인 인터넷PC를 공공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정보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어 인터넷PC 업체별로 행망용PC 공급업체 입찰에 응하였으며, 저가낙찰제로 진행된 동 입찰에서 인터넷PC업체 중 8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대기업도 초저가(90만원대)로 낙찰받았다. 90만원대의 가격은 종전 대기업 PC의 낙찰 가격보다 약 30만원정도 하락한 가격이다.

다섯째, 우체국은 그동안 컴퓨터교육장, S/W창업실 지원 등 지역정보센터로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 계획의 추진으로 우체국은 PC구입, 인터넷 가입, S/W 구입 등 지역의 정보화 수요를 윈스톱으로 해결하는 정보화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PC의 보급·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프트웨어시장, 인터넷사업, 각종 콘텐츠사업, 전자상거래사업 등 지식정보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정착을 앞당기고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국민이라는 Cyber Korea 21의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